

단편영화 제작 기획서

작품명	사형수(가제)		
소속	홍익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학부	프리프로덕션	~2022. 08. 10
감독	이가원	프로덕션	2022. 08. 16 ~ 2022. 08. 19 (4회차)
장르	스릴러, 드라마	포스트 프로덕션	2022. 08. 20 ~ 2022. 11. 30
형식	단편영화 / 20분 내외	상영	2022. 12. (미정)

기획의도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형벌, 사형에 관한 의견은 여전히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그중, 사수의 출옥 후 발생하는 재범 가능성은 무고한 인명의 피해 방지를 앞세운 찬성의 근거가 된다.

위의 주장은 타인 이전에 개인의 생존 본능을 기저에 깔고 있다. 생물들은 자신의 생존을 우선으로 두고 이기적인 과정을 통해 진화하였기 때문이다.

가부간에 사형은 제도적 '살인'이다. 그렇기에 존명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도 논점이 붙는다.

이를 옹호하는 혹자는 '나는 죄가 없다.', '죄를 지은 저들과 다르다.'라고 하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수형자와 본인을 저울질하고 비교하며 타당성을 부여한다.

하지만 '인간은 모두 집행이 연기된 사형수'라는 말처럼 티끌 없는 삶이란 흔치 않고, 평생 죄를 짓지 않을 거란 보장은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다. 이것은 자격의 문제로 이어진다.

다른 이의 잘못엔 엄격하고, 본인과 명확하게 구분 짓지만 자신의 잘못엔 한없이 너그럽다는 사람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를 통해 사형, 타인의 잘못 등에 대해 각기 다른 잣대를 대기 전, 그 자체에 대한 모순을 조금이나마 드러내고 싶다.

로그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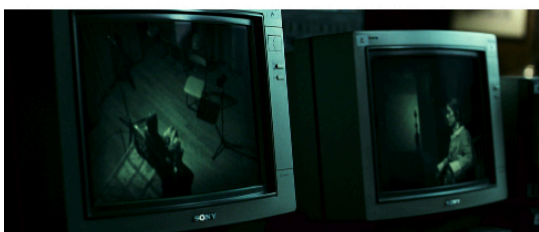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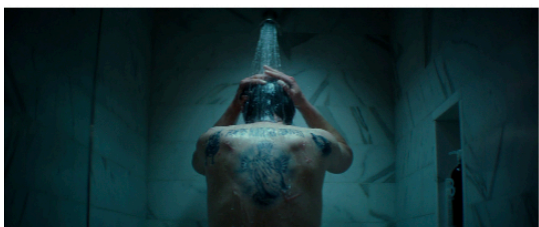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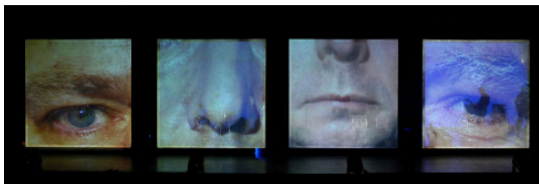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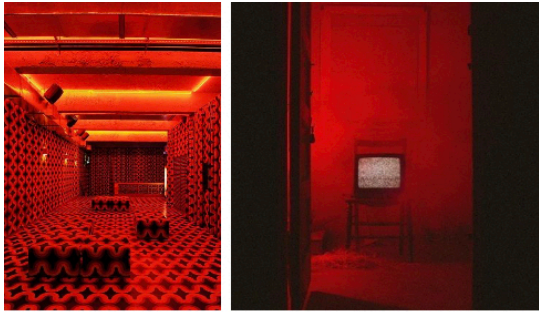
무죄를 주장하던 사형수 건우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네명의 사형수들의 형을 집행하게 된다.

컨셉과 톤 앤 매너

범죄자, 밀실, 생존, 스릴러

밀실

붉은 온도감(초반) ⇒ 푸른 모니터 불빛



폐축사

자연광, 거친 벽, 죽은 느낌



시놉시스

여느 날과 같이 자신의 방에서 자고 일어난 건우는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자고 일어남을 여러번 반복하니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인 한국에서 가장 최근, 최고형을 선고 받은 사형 확정자가 되었다.

한순간에 평범한 이십대 남성에서 사형수가 된 건우는 억울함을 주장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또 여느 날 처럼 잠에 든 그 때, 납치를 당한다.

건우는 그대로 영문을 알 수 없는 밀실에 갇히게 된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놓인 화면에선 건우에게 화면 속 사형수 네명의 사형을 집행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본적도 없는 건우는 쉽사리 집행 버튼을 누리지 못하고, 상황을 부정한다.

점점 온도, 갈증, 허기, 그리고 자아까지 부던히도 생존을 방해하는 밀실에서 살아남고 싶어진 건우는 결국 하나씩 버튼을 누르게 된다.